

# 호주 파견 마치고 미국행...누구보다 바쁜 KIA 광도규의 겨울

스리쿼터와 사이드암 섞인 투구폼 주목  
미국 베이스볼센터서 맞춤형 훈련 소화

KIA 타이거즈의 유망주 투수 광도규(19)는 그 누구보다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호주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은 광도규는 미국으로 건너가 구슬땀을 흘린다. 공주교를 졸업한 광도규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5라운드 전체 42순위로 KIA의 지명을 받았다. 역동적인 투구폼이 이목을 끌었다. 왼손 투수인데 스리쿼터와 사이드암 중간 유형에서 공을 던진다. 사이드암보다 공을 던지는 위치가 높지만, 일반적인 스리쿼터보다 낮다. 시속 140km 후반대의 빠른 공을 앞세워 시범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광도규는

지난 4월 1군 데뷔전을 치렀으나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올해 14경기에 등판해 11%이닝을 던졌고 평균자책점 8.49를 기록했다. 1군보다 퓨처스(2군)리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량을 갈고 닦았다. 정규시즌이 끝난 뒤 광도규는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KIA는 광도규 등 5명의 소속 선수를 호주프로야구리그(ABL) 캔버라 캐벌리에 파견했다. 기량 향상과 실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대주들의 호주행을 결정한 것. 광도규는 ABL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였다. 6경기에 출전해 8%이닝을 소화했고 1홀드 평균자책점 3.12의 호성적을 거뒀다. 팀 내

4경기 이상 등판한 투수 중 3번째로 평균자책점이 낮다. 당초 내년 1월 말까지 ABL에서 펠 예정이었던 광도규는 맞춤형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지난 18일 미국으로 향했다. 투수 정해영, 이의리, 윤영철, 황동하는 물론 정재훈, 이동걸 투수코치와 함께 내년 1월20일까지 미국 시애틀의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센터에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한다. 이번 겨울 KIA는 호주에 이어 미국에도 선수들을 파견하며 육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심재학 KIA 단장은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이번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군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한 주축 선수 정해영, 이의리, 윤영철과 달리 광도규, 황동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 투수로 분류된다.



이들이 주전 선수들과 함께 이번 파견 명단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구단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뉴스스

##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페퍼저축은행, 올해도 최하위

V-리그 3번째 시즌 박정아·야스민 영입하며 기대 모아...개막 2경기 만에 첫 승 올렸지만 이후 부진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번 시즌은 다를 것이란 기대도 점차 사라져 간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18일까지 2승14패 승점 6을 기록 중이다. 여자부 7개 팀 중 두 자릿수 승점을 채우지 못한 팀은 페퍼저축은행뿐이다. 1위 현대건설(12승4패 승점 37)과 승점은 31점이 차가 나고, 6위 한국도로공사(4승12패 승점 14)와도 8차가 날 정도다.

승리를 맛본 지도 오래됐다. 지난달 10일 GS칼텍스와 폴세트 점전 끝에 세트 스코어 3-2로 승리한 뒤 9경기를 내리 패했다. 한 달 넘게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분위기도 더욱 무겁게 가라 앉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V-리그 입성 후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V-리그에 처음 뛰어든 2021~2022시즌 최하위에 그쳤고, 2022~2023시즌에도 7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데뷔 첫 시즌에도, 지난 시즌에도 17연패 수렁에 빠지며 최악체

포리표를 달고 나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도약을 다짐했다. 지난 4월에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최고 공격수로 꼽힌 박정아를 영입하며 전력을 끌어 올렸다. 외국인 선수로는 이미 V-리그에서 기량이 검증된 야스민을 뽑았다. 2023~2024시즌을 출발할 때만 해도 이전 시즌과는 다르다는 희망을 품었다. 페퍼저축은행은 개막 두 번째 경기였던 10월 19일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세트 스코어 3-2로 승리해 시즌 첫 승리를 맞았다. 지난 시즌 개막 첫 승까지 18경기가 걸렸다는 점을 떠올리면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그러나 페퍼저축은행의 '힘'은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 개막 첫 승 후 4연패에 빠졌던 페퍼저축은행은 GS칼텍스를 상대로 시즌 2승째를 거둔 뒤 지나간 연패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기대했던 주포 박정아가 부상 여파로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스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야스민은 391점으로 득점 4위에 오르며 분전하고 있지만 홀로 팀을 승리로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여기에 데뷔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신에 엄 어르형도 무릎 수술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다. 좀처럼 분위기를 바꿀 만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페퍼저축은행이 이전 두 시즌의 아쉬움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 KIA 출신 파노니, 컵스와 마이너 계약...빅리그 도전

메이저리그 승격시 10억4000만원 받아

올해 KIA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왼손 투수 토마스 파노니(29)가 내년 빅리그에 다시 도전한다.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은 19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파노니가 시카고 컵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어 "파노니는 메이저리그(MLB)에 승격되면 80만 달러(약 10억4000만원)를 받는다. 내년 컵스의 MLB 스프링캠프에도 초청된다"고 덧붙였다. 파노니는 지난해 대체 선수로 KIA에 합류했다. 재계약을 맺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는 지난 7월 다시 대체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올 시즌 16경기에서 6승3패 평균자책점 4.26을 기록하는 등 KBO리그 통산 30경기 9승7패 평균자책점 3.49의 성적을 냈다.



KIA는 2024 보류선수(세계계약 대상) 명단에 파노니를 포함했지만, 파노니는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미국행을 택했다. 2018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파노니는 MLB서 통산 50경기 7승7패 평균자책점 5.46을 작성했다. 올해도 밀워키 브루어스 소속으로 빅리그 경기에 1차례 나가 2%이닝을 던지며 2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 2023~2024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허웅-허훈 형제가 나란히 1·2위 차지

허웅 3년 연속 1위...개인 통산 5번째

프로농구 KBL이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에서 부산 KCC 허웅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허웅의 동생인 허훈(수원 KT)이 2위를 차지했다. KBL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22일 동안 진행된 올스타 팬 투표에서 총 33만9206표 중 16만6616표를 획득한 허웅은 개인 통산 다섯 번째로 올스타 팬 투표 1위에 올랐다"고 알렸다. 이어 "군 복귀 후 KT의 상승세를 이끈 허훈이 14만 1655표로 2위에 올랐고, 양 소노의 에이스 이정현이 12만 8436표로 3위를 차지했다"며 "아울러 KCC 최준용(1만4600표)과 송교창(1만2095표)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의 김주성 감독과 2위 LG 조상현 감독으로 결정됐다. 올스타전 팀 구성은 추후 진행되는 드래프트를 통해 감독이 직접 선수를 선발하고 코치진을 구성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올스타전은 내년 1월14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다.

## 이정후 향한 기대감 증폭...MLB닷컴 "뛰어난 주력·어린 나이·야구 혈통"

MLB 팀 잠재 후보 선정...콘택트·수비력도 칭찬



미국 현지 매체가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이정후(25)의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예상했다. MLB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지난 18일(한국시간) 2024시즌 올 MLB 팀에 이름을 올릴 10명의 잠재적 후보를 선정했다. 내년부터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정후가 올 MLB 팀 중견수 부문에 뽑힐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MLB닷컴은 먼저 우려의 시선으로 이정후를

바라봤다. 매체는 "MLB에서 이정후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아직 알 수 없다. 몇 가지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보였다"며 "이정후는 부상으로 시즌이 단축된 올해 60%에 육박하는 땅볼 비율을 기록했고, 장타율은 전년 대비 0.120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정후의 다양한 강점을 주목하면서 올 MLB 팀 후보로 선정할 이유를 설명했다. MLB닷컴은 "이정후의 타자 프로필을 보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다. 그는 콘택트 능력과

뛰어난 주력을 보유하고 있고, '바람의 손자'라는 야구 혈통도 가지고 있다"며 "이정후는 모든 방향으로 타구를 보내는 데, 외야가 넓고 깊은 오라를 파크(샌프란시스코 홈구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나이는 25세에 불과하고, 훌륭한 수비력을 갖춘 중견수"라고 지켜세웠다. 아울러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생산력을 보여줄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는 일단 기자회견에서 '개막전부터 팬들이 내 기술에 감명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2023시즌 종료 후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빅리그 문을 두드린 이정후는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와 계약기간 6년, 총액 1억1300만 달러(약 1464억원) 규모의 메이저리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보스턴 레드삭스와 총액 9000만 달러(약 1187억원)에 계약한 일본인 타자 요시다 마사타카를 넘어서며 아시아 야수 최고액을 경신했다. 투수와 야수를 통틀어 포스팅 시스템을 거친 아시아 선수 중 이정후보다 높은 대우를 받은 선수는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라쿠텐 골든이글스) 뿐이다. 다나카는 지난 2014년 1월 뉴욕 양키스와 7년, 1억5500만 달러(약 2017억원)에 계약했다.

뉴스스

## 日 언론 "ML 최다 홈런 추신수, 내년 시즌 뒤 은퇴"

일본 언론이 추신수(41·SSG 랜더스)의 은퇴 예고 소식을 전했다. 스포니츠 아베스는 19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텍사스 레인저스 등에서 활약했던 한국프로야구 외야수 추신수가 내년 시즌을 마치고 은퇴한다"고 보도했다. "추신수의 메이저리그(MLB) 통산 218 홈런은 아시아 출신 선수 최다 기록이다.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으로 뛰며 결승에서 사투라이 재팬과 대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1시즌부터 KBO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은 '현역 선수' 추신수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다. 앞서 SSG는 "추신수가 2024시즌을 마무리하고 프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구단을 통해 "2001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야구를 해왔고, 23년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시즌인 만큼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홈, 원정 팬 관계없이 뜻깊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